

세계 경제 동향

● IMF, 세계경제전망(WEO) 발표...세계 3.1%, 한국 3.3% 성장 전망 ■ '26-10-13 국제통화기금

- IMF는 10월 13일 세계경제전망(WEO)에서 AI 투자 확산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중동전쟁·무역갈등에도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평가, 2026년 세계 성장률을 7월 대비 0.1%p 상향한 3.1%로, 2027년은 3.4%로 전망
-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6년 4.7%로 2025년(4.1%)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, 국제유가는 중동 공급 충격의 영향으로 올해 평균 배럴당 96달러(전년 대비 약 41% 상승)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선진국 2.1%(+0.4%p; 미국 2.3%, 유로존 1.1%, 일본 0.7%), 신흥개도국 3.7%(-0.1%p; 중국 4.5%, 인도 7.0%)로 전망했으며, 중동·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수출 차질로 -0.3% 역성장 후 2027년 6.3% 반등 예상
-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대외수요 호조로 2026년 3.3%(+0.7%p), 2027년 2.8%(+0.3%p)로 상향돼 세계·선진국 상향폭을 모두 웃돌았으며, IMF는 한국을 대만과 함께 AI 하드웨어 핵심 교역국으로 지목
- IMF는 이번 전망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·가스 운송이 내년 3월까지 재개된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밝힘, AI 투자 확산이 에너지 가격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평가

❖ 호르무즈 재개통 지연 시 비료·에너지 수급 차질 장기화 가능성, 농자재 조달 확보 현황 점검 필요

● 미국 9월 CPI, 유가 급등에 전월대비 0.6% 상승...연율 3.7% ■ '26-10-14 미 노동통계국(BLS)

- 미 노동통계국(BLS)이 10월 14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대비 0.6% 상승(계절조정)해 8월(0.4%)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, 전년 동월대비로는 3.7% 상승
- 에너지 가격이 전월대비 5.2%, 전년동월대비 20.4% 급등했고 휘발유는 한 달 만에 9.1%가 뛰어 전체 물가 상승 주도
- 식품물가는 전월대비 보합(전년동월대비 2.5% 상승)이었으며, 외식은 0.2% 오른 반면 가정식품은 0.1% 하락. 근원물가(식품·에너지 제외)는 전월대비 0.3%, 전년동월대비 2.6% 상승해 8월과 동일한 속도 유지

❖ 에너지발 물가 상승의 식품 전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수입 농자재·사료 원료비 영향을 선제 점검 필요

국내 경제 동향

● 한국은행, 「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」 발표 ■ '26-10-15 한국은행

- 한국은행이 10월 15일 발표한 「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」에 따르면, 중동 불안 지속·국제유가 상승·미 연준 금리인상 기대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가 채권시장 수급 개선 기대로 상승폭을 일부 축소
-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 전망과 중동전쟁 전개 상황 등에 따라 등락하다가 10월 들어 AI 투자 둔화 및 반도체 경쟁 심화 우려로 상당폭 하락해 9월 말 6,009(전월대비 -11.9%)를 기록
- 9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(+3.5조원)보다 증가규모가 +0.6조원으로 크게 축소됐으며,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축소와 개인 주식투자 감소에 따른 기타대출 감소(-2.3조원) 영향이 큼
- 반면 기업대출은 9월 +10.7조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고, 은행 수신도 +29.1조원 늘어난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-11.1조원으로 감소 전환

❖ 국고채 금리 변동성과 가계대출 둔화 추이가 농업부문 정책자금 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 농림수산성, 2026년산 논 작물 재배현황 발표 | '26-10-13 일본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10월 13일 2026년산 논 작물 재배현황을 발표하고,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136.0만ha로 최근 최고 수준이었던 전년(2025년산)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(전년대비 0.7만ha 감소) 밝힘
 - 사료용 쌀·밀·대두 등 전작 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해 최근 수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, 가공용 쌀·신시장개척용 쌀·쌀가루용 쌀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
 - 전년(2025년산)에는 재배가 없었던 비축미 재배가 2026년산에서 재개된 것으로 나타나, 쌀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비축 정책 변화를 시사
- ❖ 일본의 전작 유도 정책과 비축미 재배 재개 사례가 국내 쌀 수급조절용비·전략작물직불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 점검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농식품부, 「2026년 쌀 수급안정대책」 마련 | '26-10-13 농림축산식품부

-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3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」 마련 발표
 -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46만 톤으로,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약 6.6만 톤(총생산량의 1.9%)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, 정부양곡 대여곡 잔여물량 12만 톤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하기로 함
 - 수확기(10~12월) 중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매입, 중간정산금을 벼 40kg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, 정부·농협 벼 매입자금 총 3.9조 원을 지원해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완화
 - 올해 처음 도입된 수급조절용비 제도로 벼 재배면적을 67만ha에서 65.9만ha로 사전 조정해 적정 생산기반을 마련했으며, 가공용 쌀의 시중 유통 등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
- ❖ 최종 생산량 확정 이후 이월 재고 등을 감안한 추가 수급안정조치 필요성 선제적 검토 필요

● 국회 농해수위, 농진청·농어촌공사·aT 운영 부실 지적 | '26-10-14 국회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14일 농촌진흥청·한국농어촌공사·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기관별 사업 운영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
 - (농진청) 최근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된 농기계 R&D 사업의 실제 판매 대수가 기술이전 계약 대수의 4.3%에 불과하고, 농가 개인정보 57만 5천여 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남
 - (농어촌공사)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 매입 대기 물량이 3,220ha(필요 예산 약 1조 2,400억 원)로 적체됐으나, 담당 인력 1인당 처리 건수는 82% 급증한 반면 증원은 20명에 그친 점이 지적됨
 - (aT)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20만 건 전수조사 결과 25.6%(6,822억 원)가 특수관계인·순환거래 등 이상거래로 확인됐고,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(43.2%)에 편중돼 전통시장(13.7%)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음
- ❖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인력·예산 운영 문제에 대한 각 기관의 서면답변 및 후속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 필요